

Robert Chisholm 박사, 사무엘 상하, 사무엘 하, 세션 17, 사무엘 하 1-3

© 2024 로버트 Chisholm 및 Ted Hildebrandt

사무엘상하를 가르친 Dr. Bob Chisholm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7회입니다.
가드에서 말하지 말라(1장), 보좌로 가는 길(2장과 3장)은 피로 포장되어 있다.

사무엘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제 사무엘하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1장, 2장,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은 사울의 죽음
이후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상 31장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패배시켰고, 이는 그 나라에게 치욕스러운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장에서 다윗은 이에 대해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의 반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무엘하 1장에 '말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윗이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뉴스는 방송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대패. 그런 다음 사무엘하 2장과
3장으로 넘어가서 전체 부분인 2장, 3장, 4장, 5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남유다 헤브론에서 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린 지 7년 후에는 통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강의와 앞으로의 강의에서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무엘하 2장, 사무엘하 1장을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 이틀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이 이스라엘에 대한 블레셋의 승리에
참여했다는 가짜 뉴스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냥 그게 다야, 가짜야.

데이비드는 사라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들과 싸우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동기를 의심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리치고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죽고 이스라엘이 패할 때에도 다윗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군대를 떠나 미움받는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 사울의 진영에서 한 사람이 옷이 찢기고 머리에 흙이 묻은 채 도착했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이르렀을 때 그는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착합니다.

그는 분명히 애도 모드에 있습니다. 그의 옷은 찢어졌습니다. 머리에 먼지가 묻었어요.

그래서 데이빗은 당신은 어디서 왔느냐고 묻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벗어났노라 무슨 일이에요? 데이비드가 물었다. 말해 주세요.

남자들은 전투에서 도망쳤다고 그는 대답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떨어져 죽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보고하는 청년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알느냐? David는 이 보고서의 확인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연히 길보아 산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울이 창을 의지하고 있었고 병거들과 마병들이 맹렬히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뒤돌아 나를 보고 소리를 지르니 내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리고 그는 나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아말렉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내 옆에 서서 나를 죽여라. 나는 죽음의 고통 속에 있지만,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옆에 서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 일찍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치명상을 입은 사람을 끝내는 데 사용되는 히브리어 동사 형태입니다. 다윗이 물매돌로 골리앗을 치명상을 입힌 후 칼로 골리앗을 죽였을 때 사용된 동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옆에 서서 그를 죽이고 끝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쓰러진 후에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띠를 빼앗아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제 이것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데이비드의 반응을 살펴보기 전에 질문이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31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궁수들에게 부상을 입었고 자신이 죽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문을 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를 든 사람에게 칼로 자신을 쳐부수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갑옷을 입은 사람은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울에 대한 존경심이 너무 커서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이 자신의 칼에 쓰러져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무기를 든 사람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음, 이 장에는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해설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특정 장에서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성경에 인용될 때마다, 당신은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것이 정확한가요? 스피커의 상태와 신뢰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은 사울이 치명상을 입었지만 죽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람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했고, 아말렉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구절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31장은 일종의 간결한 기록입니다. 사울은 자기 칼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1장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칼에 쓰러졌을 때에도 여전히 죽지 않았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이 그를 끝장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아말렉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행된 방식입니다. 물론 또 다른 선택은, 아니, 사울이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은 다윗과 잘 지내기 위해 이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여기서 데이비드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일 내가 사울의 왕관과 그의 왕실 상징물을 다윗에게 가져가고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면 다윗은 나에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해 감사할 것이고 아마도 내가 그의 원수인 사울을 죽인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를 생각해 낼 것입니다.

나는 제작 관점에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 훌륭한 평론가들은 이야기의 융합에 대해 더 많은 주장을 할 것입니다. 저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두 명의 다른 누군가가 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레이터가 틀렸을 것입니다. 나는 서술자 대신 아말렉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레이터는 어떤면에서는 정확합니다.

그는 더 자세히 작성된 간소화된 설명을 제공하고 있거나 이 아말렉 사람이 이것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아말렉 사람이 다윗의 환심을 사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그의 가정은 다윗이 이것에 대해 기뻐할 것이고 사울의 왕실 휘장을 그에게 가져온 것에 대해 나에게 보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David가 이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먼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군대와 이스라엘 민족이 칼에 죽었으므로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습니다. 다윗은 개인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사울은 떠났어요.

다음 왕위 계승자였던 요나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모두 일어난 엄청난 패배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가장 염려하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그 모든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통하고 울며 금식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깊이를 강조하는 일련의 동사.

그리고 이 세 동사가 모두 함께 사용되는 구약성서의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군대는 감정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사울과 요나단과 군대와 민족에게 일어난 일을 슬퍼합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가져온 청년에게 '너는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는 내가 외국인과 공작석의 아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어 오. 그러자 다윗은 자기 부하 중 한 사람을 불러서 가서 그를 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가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이 사울을 너무나 존경했기 때문에 결코 그를 죽이지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리고 이 공작석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을 변호할 수도 있었지만, 나는 그가 나에게 말한 대로 했을 뿐입니다. 다윗의 태도는 '당신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입니다.

당신에게는 이런 일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의 기름부음받은 자를 치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과 그분의 기름부음받은 자에 대한 존경심이 부족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삶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말라카이트가 말한 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그에게 좋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이것이 여기서 다윗을 변호하는 사과와 어떻게 부합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전쟁터 근처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사울의 관, 휘장을 그에게 가져왔을 때 그 사람은 사울을 죽였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사울에 대한 다윗의 충성이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가짜 뉴스 측에서는 다윗이 결국 사울의 왕위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말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이 이야기는 그가 어떻게 그것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가져온 사람이 사울을 쳐서 그의 목숨을 끊었다고 말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다윗을 변호하는 데 어떻게 들어맞는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 어떤 면에서도 죄가 없습니다. 사실 그는 그 소식을 듣고 몹시 슬퍼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엄청난 부정적인 감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탄합니다. 1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 관해 부른 애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도 이 노래를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보(Bo)라고 불리며, 보의 애가인 케세트 보(Keshet Bo)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야샤르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책에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책에는 흥미로운 정보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이 보관하고 있는 책에 몇 곡의 노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애도에서 데이빗은 그가 축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사울의 죽음을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 마침내 문이 활짝 열렸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좌를 차지할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운명을 이어받아 내 운명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전혀 축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시적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당신의 높은 곳에 가젤 한 마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강자들이 얼마나 쓰러졌는가. 가드에는 말하지 말라. 이 말을 블레셋 지역에 방송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완화되지 않은 재앙입니다. 가드에는 말하지 말라. 아스글론 거리에서 이를 선포하지 말라.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기뻐하지 않게 하소서. 무할레자의 딸들이 기뻐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방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계속해서 22절과 23절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얼마나 위대한 전사였는지 기억합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죽어도 그들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딸들에게 사울을 위해 울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는 25절에서 다시 전쟁에서 용사들이 쓰러졌다고 말합니다.

조나단이 당신의 높은 곳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슬퍼합니다, 내 형제 조나단. 당신은 나에게 매우 사랑스러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그들 사이에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이전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 약속을 보완하는 것인지. 그들은 언약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놀라웠다고 말했습니다. 독특했어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여자보다 더 멋진데요.

글쎄요, 다윗과 요나단이 일종의 동성애 관계를 가졌다는 현대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돼. 구약의 문맥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율법에서 잘못된 것으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윗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요나단과 가졌던 사랑이 그가 여자들과 가졌던 사랑과 같은 종류나 다양성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그가 조나단으로부터 받은 사랑, 즉 충성심과 충성심이 그가 여성들과 경험했던 단순한 낭만적인 사랑보다 여러 면에서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요나단과 맺은 언약 관계는 독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여자와 함께 로맨틱한 수준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났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전혀 동일하거나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내가 조나단으로부터 받은 충성은 내가 여성과 함께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 더 심오하고 독특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은 죽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것이 축하할 일이 아니라 애도하고 애도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무엘상 31장과 사무엘하 1장을 합쳐서 이런 식으로 주요 주제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반역은 굴욕적인 패배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사울에게서 그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반역적인 종들의 죽음은 축하할 것이 아니라 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불명예를 가져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처벌하실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몰락을 축하하려는 유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몰락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군대에게 굴욕을 안겨 주었고, 그는 그것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나 자매 중 한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결코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의에 불명예를 가져오는 일이며, 애도하고 피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의 모범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David는 이런 종류의 상황에서 따라야 할 좋은 예를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에게는 보좌로 가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지금은 활짝 열려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자신의 운명을 실제로 성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2장에서 시작됩니다. 사실 다음 절 전체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2장 1절 시작부터 5장 5절까지.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큰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개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전체 섹션의 제목을 The Road to the Throne is Paved in Blood로 지정했습니다. 다윗이 단순히 들어와서 '좋아, 사울은 죽었어' 라고 말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왕이다. 사울의 추종자들이 다윗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투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북쪽 지파들은 다윗을 당장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울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북쪽 지파 가운데서 왕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왕좌에 들어가서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길고 어려운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피로 포장될 것입니다. 도중에 약간의 폭력이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아직 충분한 폭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더 많은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일어나는 타락한 세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장 1절에 이르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었습니다.

여기서는 데이비드가 자신의 운명을 완수하기 위해 매우 서두르고 있다는 인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는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이 점에 관해 오랫동안 시험을 받아 왔으며, 내 생각에 그는 기꺼이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곳에 왔습니다.

그는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는지 물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내가 어디로 갈까? 헤브론에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두 아내와 함께 그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도 그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헤브론 지방과 그 성읍들 가운데에 거주하였더라. 그 후에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지파의 왕을 삼았더라.

이것은 완벽하게 이해됩니다. 데이비드도 그 중 한 명이다. 그는 이 부족 출신이다.

그러므로 유다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권력 공백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울은 사라졌습니다. 조나단은 사라졌습니다.

과연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가?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은 다윗이 여호와께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부족이 하는 일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일을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왜 데이비드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부족 출신입니다. 그는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들의 자연스러운 결정입니다. 물론 데이빗은 이것이 그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갑니다. 다음에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사울을 장사했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사울의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윗이 이 장에서 하게 될 일 중 일부는 일종의 정치적인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그것들을 이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윗의 운명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그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다른 경우에 우리는 그것들을 살펴보고 그것은 다소 정치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자기 홍보적인 일이며 주님께서 그가 한 일을 승인하실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David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의 주변에는 항상 모호함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큰 맥락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그를 향한 주님의 의도에 비추어 그의 행동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David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간단합니다.

나는 그가 여기서 하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사울과 그의 가족에게 충성스러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의 주인 사울을 장사하여 그에게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다윗이 다시 한 번 사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식으로든 그 뒤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칭찬할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충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에게 손을 들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당신에게 친절과 신실하심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나도 너에게 같은 은혜를 베풀겠다. 그래서 다윗은 당신이 사울을 위해 한 일에 대해 칭찬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에 대한 당신의 충성심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 그것에 대해 보상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강하고 용감해지십시오.

사울에게는 당신의 주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 위에 왕을 세웠습니다. 이는 마치 다윗이 사울에 대한 당신의 충성심을 칭찬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울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내가 왕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예, 정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사울의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을 하도록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데이빗이 그곳에서 하고 있는 일을 부정적으로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군대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 모든 일을 하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트란스요르단 마하나임으로 건너갔습니다. 요르단 동쪽에 있습니다. 당신은 왜 우리가 이스라엘 중부 고향 어딘가에 왕을 바로 세우지 않는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거의 침략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를 길르앗과 아수리와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유다는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유다는 이미 다윗을 위해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트란스요르단에 상점을 세웠다는 것은 매우 시사하는 바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곳을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40세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는 다윗에게 충성을 유지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통치한 기간은 7년 6개월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보셋의 2년이 그 7년 중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7년 동안 남방의 유일한 왕 이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잠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 사이 아브넬은 사울 왕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보셋을 넣어 왕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친사울파와 친다윗파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여러 면에서 다윗을 옹호하는 책으로 설명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 갈등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 대한 반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구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서에서 우리가 얻는 정보 중 일부는 사람들이 다윗이 실제로 선택받은 자임을 알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 맞춰야 합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사람들과 함께 마하나임을 떠나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부하들이 나가서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이건 재미 있네. 한 그룹은 수영장 한쪽에 앉고, 다른 그룹은 반대편에 앉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청년들 중 몇 명을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손을 맞대고 싸우도록 합시다.

실제로 히브리어 동사는 놀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단지 스포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놔두세요.

내 생각에 그것은 일종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챔피언을 내보내라고 도전했을 때와 비슷합니다. 단일 전투. 이것은 일종의 팀 버전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12인과 12인의 대결을 벌이는 것과 같으며, 여기서 승리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베냐민 편에 있는 열두 사람, 사울을 지지하는 열두 사람, 그리고 이 시점에서 열두 사람, 즉 이스보셋, 그리고 다윗 편에 있는 열두 사람이 함께 모여 짝을 이루고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각기 상대의 머리를 잡고 단검으로 상대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내가 그 사람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찌르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 사람도 나한테 똑같은 짓을 해서 우리는 서로 찔러죽이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함께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내 말은, 평소에는 여기에 방패를 두고 이쪽에서 일을 하겠지만, 분명히 그들은 서로 칼을 들고 덤벼들다가 죽는 것 같았는데, 기브온의 그곳은 헬갓핫수림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아마도 거기에서 읽은 원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싯돌이 있는 부분이나 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 시점에서 본문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이 약간

기술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Dalet과 Resh, Dalet과 Resh, D와 R이라는 문자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히브리어로 쉽게 혼동되기 때문에 본문을 Siddim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변의 뭉, 즉 변의 발을 의미하며, 그들은 서로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또 다른 옵션은 Tsurim을 Tsarim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모음의 변화일 뿐입니다.

글자를 바꾸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Tsarim은 적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투기의 부분이나 분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이름을 따서 따지면 플린트보다 사이드나 파이터가 더 잘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종의 기술적인 문제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팀 전투 상황에서는 실제로 아무 것도 나오지 않으며 군대 간에 전투가 발생합니다. 그 날의 싸움은 매우 치열하여 아브넬과 이스라엘 자손은 다윗의 군사들에게 패하였다. 그래서 전투가 벌어지고 18절에 스루야의 세 아들이 있다고 나옵니다.

이제 그녀가 누구인지 기억해 보세요. 그녀는 다윗의 누이이므로 이 사람들은 다윗의 조카 요압, 아비새, 아사헬입니다. 우리는 전에 요압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아비새는 다윗과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가서 창으로 사울을 찔러 죽이려고 했습니다. 데이빗은 그가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자헬이 있습니다.

아자헬은 야생 가젤처럼 발이 빨랐기 때문에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것이 그의 큰 장점이다. 그 사람도 어리거든요.

그는 요압만큼 경험이 풍부한 전사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글썄, 그는 Abner를 쫓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생각엔 아자헬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아브넬을 쫓아갔고, 그는 빨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를 쫓아갔습니다. 아브넬은 뒤를 돌아보다가 아사헬을 봅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인가요, 아자헬?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라. 젊은이 중 한 명을 붙잡아 무기를 빼앗아라.

아시다시피, 당신 또래의 누군가와 싸우세요. 그의 무기를 가져가세요. 당신에게는 많은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자헬은 그를 쫓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Azahel은 내가 장군을 데리고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난 아브너를 쫓을 거야.

Abner는 Azahel에게 경고했습니다. 나를 쫓지 마세요. 내가 왜 당신을 쳐부수어야 합니까? 마치 아브너는 자신이 이 청년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죽이면 요압이 말하기를 너만한 자와 싸우라 하리라

거기엔 무슨 명예가 있었나요? 그는 내가 요압을 상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이 일이 아무런 명예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당신을 위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나는 당신이 나를 죽이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아자헬은 추격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넬을 쫓아오겠다고 고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다가올수록 너무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가젤처럼 빠르며, 아브넬을 붙잡을

것입니다. 아브넬은 뛰어난 전사이지만, 말하자면 이 어린 가젤을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오고 오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bner는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아사헬이 추적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창 끝, 창 뒷부분을 아사헬의 배에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등을 통해 창이 나왔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 떨어져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사헬이 쓰러져 죽은 곳에 이르자 모든 사람이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아브넬이 창 끝을 빼앗아 내밀었고, 아사헬이 그 창으로 달려갔습니까? 창의 뭉툭한 면? 본문은 아사헬이 얼마나 빨리 오고 있는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야,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정말 빨리 움직여야 할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가 창 뒷부분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아브넬이 창 뒤쪽으로 달려갔다고 말할 것입니다.

즉, 그는 창을 들고 등을 찌르는 일을 했으며, 이는 창 끝이 어떻게 그를 관통하는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선호하는 또 다른 설명은 창입니다. 우리는 고고학을 통해 이것을 알고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탄피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창의 칼날이 있는 타격면, 즉 창 끝이 아닌 창의 엉덩이 끝 부분에 때로는 뭉툭한 끝에 금속 케이스를 씌웠는데, 그렇게 뾰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땅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붙일 수 있었습니다. 전투에서 사용할 창 끝이 땅에 닿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가 창의 엉덩이 끝에 금속 케이스를 달고 있어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말하자면 아사헬을 찔러버릴 만큼 날카롭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아사헬은 이제 죽었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뒤쫓았습니다. 해가 진다는 말씀이 24절에 나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아브넬 뒤에 모여서 한 무리를 이루고 언덕 꼭대기에 섰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요압을 불러냅니다. 그는 충분히 지냈습니다.

칼이 영원히 삼켜야 합니까? 이것이 괴로움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당신의 부하들에게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하는 것을 멈추라고 명령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그래서 아브넬은 휴전을 요구합니다. 그는 충분히 지냈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패했고 단지 휴전을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27절에서 요압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사람들이 아침까지 쫓아갔을 것이니라.” 그래서 요압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군대가 멈췄습니다.

그들은 추격을 중단합니다. 싸움은 끝나고 모두가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아사헬 외에 다윗의 부하 중 19명이 없어진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아브넬과 함께 있던 베냐민 사람 36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서 아사헬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요압이 전투에서 승리한 것에 만족하고 그게 전부인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3장에서 볼 수 있듯이 요압은 아브넬에 대해 끝나지 않았습니. 3장 1절의 시작 부분에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남쪽 헤브론에서 유다를 통치하는 이 7년 기간 동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이러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다윗이 왕좌에 들어가서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왕좌로 가는 길은 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가 자신의 운명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이전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그의 두 번째 아내로 삼았을 때 다른 맥락에서 이것을 언급했습니다.

제가 하렘 보고서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다윗에게 두 아내, 즉 아키노암과 나발의 과부인 아비가일이 일관되게 있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아들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읽습니다. 3:2ff].

만아들은 암논으로 나중에 이야기, 특히 사무엘하 13장에서 이스라엘 출신 아히노암의 아들로 등장하게 됩니다.

둘째는 갈멜 사람 나발의 과부인 아비가일의 아들인 길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아내의 이름을 거기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그들은 각각 아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매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이것은 트랜스요르단에 있는 게슈르(Geshur)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술 왕 달매의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때때로 이 문화에서는 동맹을 맺고 정치적으로 자신을 확고히 하기 위해 아내와 결혼할 것인데, 다윗이 여기서 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넷째는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요 칠레브를 제외한 이들 모두는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학깃의 아들.

다섯째는 아비달의 아들 스바댜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니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아들이요

이들은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태어났습니다. 갑자기 데이비드에게는 여섯 명의 아내가 생겼습니다. 나머지 네 개는 어디서 왔나요? 그에게는 현재 6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것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볼 것입니다. 다윗은 아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너무 많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은 신성한 축복의 표시입니다. 그는 비옥합니다.

그는 아이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신명기 17장에서 왕권의 이상은 왕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글쎄요, 제 생각에는 랍비들이 아내를 늘리기 전에 아내가 몇 명입니까?라는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해당 분기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전형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내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두 개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잠시 정당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내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6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다윗의 왕궁이 하렘과 많은 아이들이 있는 전형적인 고대 근동 왕궁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신명기 구절을 보면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그 아내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외국 여성과 결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들을 데리고 들어올 것입니다.

나중에 북왕국에서 끔찍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했을 때 읽은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 밖의 모든 것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솔로몬에게서 그것을 봅니다.

그는 외국인 아내를 포함하여 많은 여성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마음을 여호와에게서 돌이켜 적어도 여호와를 향한 온 마음의 헌신에서 다른 신들에게로 돌이키게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일부다처주의자이자 다신론자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한 이들은 모두 현지 소녀들이다. 그들은 다윗의 마음을 여호와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당신은 그것을 고려하여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점은 다윗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솔로몬이 n급까지 가져갈 선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선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왕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다윗이 우상 숭배자가 되었음을 암시하는 어떤 내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좋은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초에 균열이 생긴 것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데이비드를 둘러싼 모호함 중 하나입니다.

네, 그는 여기서 아주 성공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의 한가운데서 나는 이것이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이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전형적인 왕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 중에 아브넬은 사울의 집에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아야의 딸 리스바라는 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자기와 동침했다고 비난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의 첩과 잤어요? 이것은 내가 왕이 되겠다는 아브넬의 발언이기 때문에 심각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나는 전왕의 첩을 직접 데려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보셋이 이 일로 인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브넬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거짓 비난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의 말 때문에 아브넬은 몹시 화가 났다.

그가 대답하되 오늘 내가 유다 편에 개머리 같으니이까 나는 당신 아버지의 집과 그의 가족, 친구들에게 충실합니다. 나는 너를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았다. 당신은 당신 아버지의 첩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내가 불성실하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나는 줄곧 신실한 친사울파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당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이 여자와 관련된 범죄로 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을 다윗에게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넬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스보셋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옮기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남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다윗의 왕위를 세우는 것을 도우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위협을 받습니다. 그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결정했습니다. 그의 명예는 여기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David에게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데이비드에게로 갈 것이다. 그리고 그는 데이빗에게 다가갑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간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는 당신과 합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충분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전체를 너희에게 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일종의 정치적인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David는 "나는 당신과 그 계약을 맺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네가 나를 보러 올 때 사울의 딸 미가엘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앞에 오지 말라. 이제 기억하세요. David는 Michael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도망할 수밖에 없게 되자 사울은 그 여자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데이빗이 여기서 그녀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를 보내어, 내가 블레셋 사람의 포피 백 개를 주고 약혼한 내 아내 미가엘을 나에게 주라고 요구했습니다.

나는 큰 대가를 치렀다. 나는 내 생명을 걸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위해 지불했습니다.

그녀는 내 꺼야. 그래서 이스보셋은 이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가 David가 옳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명령을 내려 그녀를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Michael은 Paltiel과 행복하게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데이비드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데이비드가 탈출하는 것을 도왔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버렸습니다. 내 말은, 그녀는 이 문화에서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죠.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이 팔티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그녀와 함께 울며 바후림까지 갔다. 그래서 이스보셋의 부하들이 와서 그녀를 발디엘에게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느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를 따릅니다. 아브넬은 마침내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아야 합니까? 나는 이스 보셋 으로부터 얻은 반응에 비추어 볼 때

다윗이 옳은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 일을 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정치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마이클은 사울의 딸입니다. 다윗은 이 시점에서 친사울파인 베냐민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David는 Michael을 다시 자신에게 데려옴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는 Saul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리한 정치적 움직임이지만 매우 무감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의 깊게 조사한 일부 학자들은 여기에 사용된 일부 언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화자는 팔티엘을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데이비드는 마이클을 내 아내라고 부르지만 화자는 마치 데이비드의 관점에 도전하려는 듯 팔티엘을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한 작가는 내레이터가 두 가지 관점 사이에 고의적으로 대조를 만들어 그 중 하나에 대한 동정심을 배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비난을 받은 Naval과 달리 Paltiel은 굴욕감을 느낍니다.

그는 아내와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굴욕은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세력에 희생된 결과입니다. 그는 다윗의 권력의 희생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록 다윗이 여기서는 오른쪽에 있지만 나중에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를 훔치기 위해 왕으로서의 권력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되고 있는 전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데이빗의 잘못이 분명합니다. 그는 간음을 범할 뿐만 아니라 살인도 범합니다.

따라서 불쌍한 팔티엘에게서 마이클을 되찾은 다윗과 그가 밋세바와 함께 무엇을 하게 될지에 대한 전조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여기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엔

다윗이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아브넬과 연계하여 정치적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의논하니 당신들이 한동안 다윗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데이비드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내 종 다윗을 통하여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과 그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용문은 없지만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말한 다음 헤브론으로 가서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전체가 원하는 것을 다윗에게 모두 말했습니다. 이에 그가 오매 다윗이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아브넬이 이르되 내가 가서 내 주 왕을 위하여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그들이 당신과 언약을 세우리이다 하였느니라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변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충성을 바쳤습니다. 이제 그는 다윗을 그의 주, 그의 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이 다윗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때 다윗의 부하들과 요압이 습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함께 엄청난 양의 약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더 이상 다윗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에 의해 보내졌습니다.

그는 평화롭게 떠났고 그게 중요해요. 전쟁은 끝났다. 지금은 평화의 시간입니다.

요압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사가 이르매 아브넬이 거기 있다 함과 왕이 그를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다는 말을 듣느니라 . 그리고 요압과 그는 이야기에서 더욱 두드러진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는 다윗에게 가고, 그의 지위는 다윗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항상 다윗의 최선의 이익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다윗이 강하면 요압의 입지도 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보십시오, 아브넬이 당신에게 왔습니다. 왜 그를 놓아줬나요? 이제 그는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아브넬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속이고, 당신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알아내기 위해 온 것인데, 내 생각에는 이것은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브넬은 진심으로 다윗의 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동기도 있습니다.

그는 이스보셋에게 화를 냈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 평가에서 요압이 옳다고 믿지 않습니다. 비록 역사를 고려할 때 그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 수는 있지만 말입니다. 그는 틀렸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을 떠나 아브넬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브넬을 다시 데려옵니다. 그런데 26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해설자가 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손을 내밀어 베냐민 사람들과 아브넬과의 평화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압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는 다윗이 요압을 보내어 이 일을 하게 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

사실 다윗은 요압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요압은 마치 그에게 개인적으로 말하려는 것처럼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요압이 그의 형제 아사헬의 피를 갚으려고 그것을 제쳐두지 않았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는 이전의 경우에 아브넬을 쫓는 것을 중단했지만 그것을 제쳐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배를 찢러 죽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아주 불리한 시기에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아브넬은 왕국을 다윗에게 넘겨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압이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입니까? 데이비드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자신이 있지 않다는 점을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윗이 여기서 지나치게 정치적인 것처럼 보인다면 거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요압이 행한 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나일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라 하셨느니라

그의 피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온 가족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는 요압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그리고 저주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가해자에게 정의를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요압의 집에 폐병 환자나 문둥병 환자, 목발을 짚는 사람, 칼에 죽는 사람, 먹을 것이 부족한 사람이 결코 없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으므로 그를 죽였습니다. 이전에는 실제로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요압이었지만, 아비새는 어떤 면에서는 이 일에 동역자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요압에게 이르되,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아브넬 앞에서 애곡하며 다니라. 우리는 국장을 치를 예정이고, 당신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애도하며 바로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맥주와 관 뒤로 걸어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아브넬의 무덤에서 큰 소리로 울었고, 모든 백성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작곡과 작곡에 능숙한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 애가를 부릅니다. 불법자들이 죽듯이 아브넬도 죽어야 했습니까? 네 손이 묶이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매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악인 앞에 엎드러짐 같이 엎드러졌느니라.

그래서 그는 다시 요압을 악인 역할에 캐스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일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와서 다윗에게 아직 낮 동안에 음식을 좀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맹세했습니다. 내가 해가 지기 전에 빵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하게 벌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백성이 이것을 보고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을 기뻐하더라. 내 생각에 그들은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일에 왕이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검토하자면, 이야기의 이 부분은 다윗을 변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한 일이 이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항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화자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합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결백에 항의합니다.

그는 요압과 아비새를 저주합니다. 그는 요압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국가가 후원하는 장례 행렬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애도를 외쳤다. 그는 금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요압에게 또 다른 저주를 내립니다.

38절과 39절에 보면 왕이 신하들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휘관과 대인이 죽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는 아브넬에 대해 매우 높은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나는 기름부음받은 왕이지만 약합니다.

그리고 내 조카인 이 스루야의 아들들은 나보다 너무 강합니다. 여호와께서 악을 행한 자에게 그의 악한 행위대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좋게 들립니다.

데이빗은 이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수를 이루시기 위해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엔 데이빗이 여기서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아. 그는 정의를 실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왕으로서 그의 임무입니다. 요압은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있을 때 왕은 하나님 아래서 그에 대해 뭔가를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영역에 정의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는 아말렉 사람을 죽이는데 매우 빨랐습니다. 아말렉 사람이 이르되 내가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손을 들었더니 다윗이 이르되 너희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 하였느니라.

그 사람은 그런 일을 아주 빨리 해요. 그리고 사실 4장에서 우리는 그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이스보셋을 암살하려는 자들을 매우 신속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요압이 연루되면, 즉 가족이라면 그는 더욱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암논이 그의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할 때 그를 곤경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암논에게 화를 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다말의 친오빠를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상황을 보고 '아버지가 이 문제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신다면 나도 해야 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그는 그렇습니다. 그는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은 나가서 자신을 공의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 마치 내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니 내가 진실로 너희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 다윗의 실패는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압살롬이 할 일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그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에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해야 할 만큼 정의를 증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는 마음 속으로, 당신의 등을 감싸줄 요압, 즉 아비새가 있다는 것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요압을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은 전쟁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지금은 평화의 시간입니다. 본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은 이것에 관해 말할 것이고 요압이 평화로운 때에 아브넬을 죽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피의 복수 규칙 때문일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헬은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그는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넬은 무죄입니다. 그는 전투에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이나 살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요압이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를 저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요압은 살인자인데 다윗은 이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엔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4장과 5장으로 가서 보좌로 가는 길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지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그 장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사무엘상하를 가르친 Dr. Bob Chisholm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7회입니다.
가드에서 말하지 말라(1장), 보좌로 가는 길(2장과 3장)은 피로 포장되어 있다.